

우기 닥치는 네팔, '제 2의 재앙' 우려

대지진에 집중호우...산사태나 전염병 유발 가능성

수색·구조 마무리 단계...사망·부상자 수 크게 늘듯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에서 우기(문순)가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에게 설상가상의 피해를 안길 것으로 염려된다.

폭우가 추가 산사태를 일으키거나 집을 잃은 이재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네팔 지부의 로우나 칸 부대표는 3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치명적인 질병 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칸 부대표는 "질병 발생의 위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진흙탕이 되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팔의 우기는 통상 6~9월이어서 이재민 구호의 '골든타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유엔도 전염병 확산의 염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더 많은 헬기를 동원해 고립된 산간 마을에 신속하게 구호 물자와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람 사란 마하트 네팔 재무장관은 "문순이 얼마 안 남았고, 문순 전 폭우도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내주 무렵까지 텐트나 생활품 등을 이재민에 공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재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기에 쏟아지는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도 기상당국은 올해 네팔의 우기에는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추가 재난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로라 블랭크 공보담당은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의 경사면이 잦으면 흩어 무너져내려 마을 전체를 매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네팔에 설상가상의 비극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미시간대 마틴 클락 교수는 위성사

진을 분석한 결과 산사태가 추가로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이 수만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네팔에서만 7276명이 지진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마하트 장관은 "모든 주택이 무너진 마

음도 있지만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여진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 최종 사망자 수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네팔 전역에서 30만채 이상의 가옥이 완파 또는 부분 파손됐고, 진앙지에 가까운 고르카와 신두팔축 지역에선 전체 가옥의 90%가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진 발생 8일 만에 101세 노인을 비롯한 4명을 구출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훨씬 지난 만큼 추가 생존자 구조의 가능성은 희박

해지고 있다.

따라서 네팔 당국은 생존자 구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재민 대책을 더 시급한 문제로 다룰 방침이다.

라시미 다칼 네팔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네팔에서 구조작업을 진행중인 각국 구조대에 남은 구조와 수색 작업은 네팔 측이 맡을테니 이제 출국해도 좋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칼 대변인은 "매몰자들이 에어포켓에 있지 않은 이상 살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 메르켈 총리 나치 수용소 참배

가 수용소 해방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나치 강제 집단수용소인 바이에른 주 다하우 수용소를 찾아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 또 다짐했다. 독일 현직 총리

美 불티모어, 통행금지 조치 해제

메릴랜드주 방위군도 철수

경찰의 이송 과정에서 흑인 용의자가 숨진 일을 계기로 폭동이 발생했던 미국 메릴랜드 주 불티모어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스테파니 롤링스-블레이크 불티모어 시장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필요 이상 통행금지를 유지하는 일은 (치안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롤링스-블레이크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제 그(통금 해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티모어 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10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적용되는 야간 통금을 시행했고, 이 조치는 1주일간 이어질 예정이었다.

치안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메릴랜드 주 방위군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불

티모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방위군의 철수가 시작됐다"며 "3000명가량인 주 방위군과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약 1000명의 경찰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 지사는 "지난주 월요일에는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웃과 공동체가 서로 돕고 돌보는 놀라운 선행이 이어졌다"며 "통행금지가 해제돼서 기쁘고 이제는 도시와 주민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다.

불티모어 현지 언론들은 전날에도 약 1000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렇다 할 폭력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메릴랜드 주 검찰이 흑인 용의자 사망 사건에 관련된 경관 6명을 살인과 과실치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이후 소소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시진핑-주리룬, 7년만의 국공 수뇌 회담

양안 관계발전 방안·현안 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와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이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국공(國共) 수뇌회담'을 열어 양안(兩岸) 관계 발전방안과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현직 최고지도부 간 회담은 2008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공산당 총서기와 우보송(吳伯雄) 당시 국민당 주석과의 회담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안관계의 평화 발전에 관한 중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92컨센서스(92共識·九二共識)' 및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92컨센서스'는 지난 1992년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일컫는다.

시 주석은 양당이 또 민족적 대의를 견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양안 민중의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 것으로 보인다.

주리룬 주석은 '92컨센서스'를 견지하면서 대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인민대회 당에서 약 10명 내외의 대표단이 함께하는 '원탁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

정부 "북, 주원문씨 억류 유감...조속 석방하라"

지난달 압록강 건너 입국 미 뉴욕대 한인학생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적자인 미국 대학생 주원문씨를 '불법입국' 혐의로 불법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4일 강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주원문 학생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원문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

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21)씨가 지난 달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입국'하다 단속됐다고 2일 보도했다. 주

씨는 우리 국적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원문 씨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 씨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한 주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보도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향후 주원문 씨가 우리 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 규모 6.0 지진

뉴질랜드 남섬에 4일(현지시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원은 뉴질랜드 남섬 외나카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 남섬 휴양지 퀸스타운에서 북쪽으로 59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진원은 10km로 얕은 편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성명에서 일부 지역에서 창문이 깨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직 인명 피해 등 대규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언론인 페어팩스 미디어는 인기 관광지인 외나카 '퍼즐링 월드'를 방문한 관광객이 진동에 놀라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들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